

시론



김희준

L.K.B&Partners 대표변호사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최근 강남에 소재한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언론의 취재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버닝썬 클럽에서 물뽕(GHB)이 유통됐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물뽕은 필자가 1998년도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최초로 적발하고 이름까지 붙여준 신종마약이다. 이러한 연유로 최근 필자는 본의 아니게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다.

물뽕의 정식명칭은 GHB(Gamma-Hydroxy Butrate)이다. 강한 성적 흥분 작용이 있는 이 마약은 무색·무취로서 상대방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여성 몰래 술에 타서 투약을 시킨다. 주로 자기 자신이 투약하는 히로뽕, 대마 같은 일반마약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물뽕은 대부

분 성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데이트강간 마약(Date Rape Drug)라고 부른다. 필자는 당시 히로뽕을 밀매하려는 일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매수인으로 위장해 거래를 시도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수사는 성공하여 마약밀매 일당들을 모두 검거했고, 그 과정에서 큰 생수통 2통을 압수하게 됐다. 그 안에는 물 같은 액체가 들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히로뽕이라고 했다. 통상적으로 히로뽕은 분말 형태여서 왜 물처럼 생겼냐고 물으니 그들은 제조기술이 발달해 액체형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필자는 위 물질이 당연히 히로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런데 감정결과는 황당하게도 그냥 맹물로 나왔다.

유통 경로를 확인해보니 그들은 오산 소재 미군기지 안의 흑인으로 부터 구입했다고 했다. 공급책을 검거하기 위해 미 공군 특수수사대에 연락해서 미군과 미군가축들 사진첩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가명을 사용하는데 흑인의 얼굴을 구분하기 어려워 공급책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들은 계속 히로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필자

는 위 액체가 단순한 물은 아니고 무엇인가 특이한 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군 수사관에 감정을 부탁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감정할 방법이 없고 미국본토에 보내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 후쯤 감정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되는 GHB라는 신종마약이었다. 만약 미국에까지 감정의뢰를 하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결과였다. 당시 이 내용은 마약의 청정지대인 광주·전남지역에서 신종마약이 발견됐다면선 전 국적으로 크게 보도가 되었다. 필자는 GHB를 마약류에 등재시켜 달라고 법령개정 건의를 하였고 결국 2001년 법률상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러한 경위로 발견된 물뽕이 이번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적 관심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가가 맞는지, 마약단속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정 국가의 기준은 마약류 사범 적발통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마약사범들이 암약하고 있는데 제대로 적발해내지 못해 통계상 청정국가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필자는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필자가 광주지검 강력부에서 마약전담을 할 때 마약 수사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전에 비하여 거의 10배에 가까운 마약 사범을 적발했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마약 청정지대인 광주·전남지역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마약은 그 종류뿐만 아니라 그 경로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그에 반해 적발시스템은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그동안 마약수사를 전담해 오던 강력부 폐지가 논의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마약수사관들의 사기가 갈수록 저하되고 마약수사를 하겠다는 지원자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마약사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청나라가 아편 때문에 붕괴되었듯이 마약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봉쇄하지 않으면 나라의 존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가가 맞는지, 현재의 시스템만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가능한지에 관해 전 국가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가인가?

전남 섬 자원 콘텐츠화 개발 노력 기대 크다

2천165개 섬을 보유한 전남도가 섬 자원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적극 개발에 나서고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

개발의 방향은 문화·관광·환경·해양·생태 자원의 보고인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섬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는 섬발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섬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지원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와 주민 갈등 해소, 행정과 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전남도 섬 발전지원센터는 섬 가구기에 대한 구체적 현장 지원, 섬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및 여행상품 발굴, 섬 특산품 개발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설립 등 주민이 먼저 살고 싶고, 여행자들은 가고 싶은 섬을 가꾸기 위해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등 관련 기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섬연구진흥원은 육지와 차

별화된 생태, 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한 섬에 대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체계적 연구와 자료 축적 등을 위한 섬 발전 종합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을 전남도가 제안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설립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2026 세계 섬 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이다.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섬을 주제로 한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는 것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시즌 2' 성격이다. 남해안 관광벨트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 여수시는 아름다운 섬·교량, 연안을 주제로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미래 섬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 섬 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 8월8일 '제1회 섬의 날' 행사도 의미있는 프로젝트다. 섬의 날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서 전남 개최를 확정했다. 행사지역은 목포와 신안 두 지자체 중 한 곳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전남도가 섬 관련 자원을 잘 살려 섬연구진흥원, 섬박람회, 섬의날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미래 유망산업 육성에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영호남 지자체 내륙철도 건설 힘 모아야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양 지역 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고무적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1일 대구 엑스포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 경우 8개 지자체와 실무자협의회를 갖고 조기건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설 사업비 6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했으며,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됐다.

현재 광주·대구시는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앞서 논리를 개발하고 B/C(비용편익비율), AHP(계층분석법) 등을 사전에 검토해보기 위해 오는 5월을 목표로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철도건설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2030년까지 총 6조3천87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SOC사업으로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해인사-고령-대구 등 영·호남 10개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191.6km구간에 고속화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영·호남 내륙도시 간 연결로 산업구조 연계 등 일자리 창출과 관광특화사업 추진 등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 자동차산업, 대구 자동차부품산업, 목포 조선산업, 여수 석유화학, 포항 철강산업, 부산 물류산업 등 분산 배치된 산업 클러스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상호연계로 단일 경제권 형성, 경제효과 증대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분위기에 맞춰 남북철도와 달빛내륙철도 연계를 통한 향후 남북 경제협력사업 전체효과를 제고해 영·호남까지 수혜지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호남 10개 지방자치단체는 달빛내륙철도 건립사업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가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문화난장



박희순

전통문화관 기획운영팀 차장

2019년 전통문화관 일요상설공연의 주제는 좋은 공연이다. 사전에선 '좋다'를 '성질이나 내용이 보통 이상이거나 우수한 것'이라 한다. 좋은 공연을 사전적 의미로 풀어보면 '보통 이상의 우수한 공연'이라 할 수 있다. 그럼 '보통 이상의 우수한 공연'이란 무엇일까?라고 물으면 섣뜻 답을 찾기 어렵다. 2019년 일요상설공연은 그 해답을 관람객들로부터 찾고자 한다. 가족들이 찾는 공연, 친지들이 찾는 공연, 타 지역의 관광객들이 찾는 공연 등 시민 누구나 찾는 좋은 공연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국악장르 이해에 큰 도움

일요상설공연은 판소리 무대, 국 무대, 연희 무대, 퓨전국악 무대, 무용 무대, 산조 무대 등 월별로 장르를 달리해 공연한다. 3월에는 판소리 무대다. 3월3일 첫째 판은 조통달 명창의 미산재 '수궁가'다. 미산재는 박초월 명창이 자신의 더늠과 색깔을 넣어 재해석한 소리로 박초월-조통달-유대평양에게 전한다.

독자투고

산불 발생시 대피·진압 요령

소방관들도 신입시절 산불 진화 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산불 화재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위에 구조물 없이 열린 공간이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거센 바람을 예측 못해 연소 확대가 이뤄졌다.

일반인들이 산불 화재 현장에 있다면 혼란스러움은 배가 될 것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산불 화재 대피·진압 요령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산행 중 산불이 발생, 불길에 휩싸이면 침착하게 불기운이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산불이 주책가

까지 확산되면 집 주위에서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을 제거해야 한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행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고 불길에 휩싸이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한 뒤 불기운이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대피 장소는 타버린 연료 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위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며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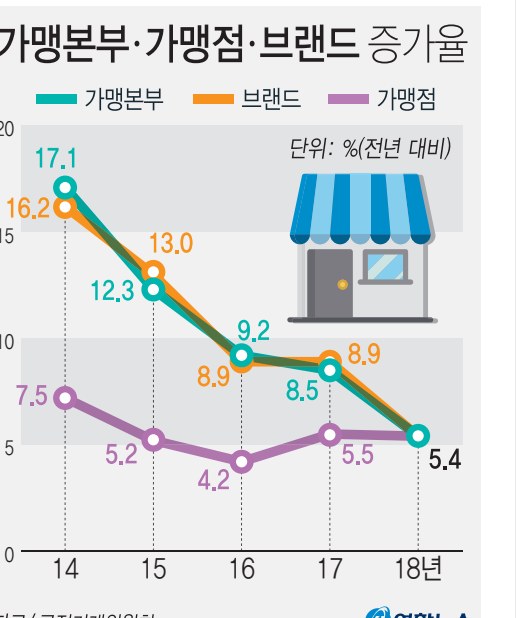
곳을 골라 연소 물질을 끊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린다. 산불이 주택가까지 확산되면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며 폭발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주민 대피령이 발령 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 장소는 산림이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한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이웃에 대비해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도 알려준다. 직접 산불 진화에 참여할 때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 진화를 위한 평이 같은 간이도구와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장구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진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동하며 산불은 기상 변화에 따라 연소 속도가 빠르고 연소 방향이 급변하므로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두 곳 이상 확인한다. 진화 작업시에도 강풍으로 불길이 급속히 번질 때 연기에 의한 질식사 또는 불길에 휩싸여 화상 등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골라 내리는 눈, 발,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한다. 특히 대피하지 않은 이웃에 대비해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도 알려준다. 직접 산불 진화에 참여할 때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 진화를 위한 평이 같은 간이도구와 안전모, 안전화 등

그래픽 뉴스

가맹점 24만개 돌파...‘과잉경쟁’ 외식업 5년도 못가

가맹 브랜드와 가맹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작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가맹 브랜드 수는 6천52개로 사상 처음 6천개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가맹본부는 4천882개고, 가맹본부에 가입한 가맹점(이하 가맹점 수는 2017년 말 기준)은 24만3천454개로 역시 역대 가장 많았다. 한국의 가맹본부 수는 미국(약 3천개)보다 1.6배, 일본(1천339개)보다 3.6배 많다. 미국이 인구 3억명, 일본이 인구 1억명 수준인 점을 고려한다면 인구 5천만명 수준인 한국의 가맹본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다만 그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4-2018년 증가율을 보면 가맹본부는 17.1→12.3→9.2→8.5→5.4%로 5년 동안 ⅓ 토막 났다. 가맹 브랜드 역시 16.2→13.0→8.9→8.9→5.4%로 비슷하게 둔화했다. 가맹점은 7.2→5.2→4.2→5.5→5.4% 등으로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가맹본부나 브랜드보다는 약했다. 가맹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업종은 외식업(11만7천202개·48.1%)이었다. 이어 편의점 등 도소매업(7만1천230개·29.3%), 서비스업(5만5천22개·22.6%) 순이었다. 평균 사업 기간은 외식업이 4년 7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서비스업 6년 1개월, 도소매업 6년 5개월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브랜드보다는 약했다.

가맹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업종은 외식업 (11만7천202개·48.1%)이었다. 이어 편의점 등 도소매업 (7만1천230개·29.3%), 서비스업 (5만5천22개·22.6%) 순이었다.

평균 사업 기간은 외식업이 4년 7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서비스업 6년 1개월, 도소매업 6년 5개월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정지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화부 650-2067

지역특집부 650-2060

체육부 650-2065

사진부 650-2080

시설실 650-2006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광국 650-2072

경영지원국 650-2010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20

FAX 650-2016

편집국 650-2017

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